

# 장애인 정보격차 현황과 해소방안

## Measures to Narrow the Current Digital Divide for the Disabled

### 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식과 삶의 양식 등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전산원(2000)에 따르면, 국민 100명당 컴퓨터 보유대수는 16대로서 세계 23위이며, 전반적인 정보화수준은 세계 22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5위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산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7.7%에서 2000년 3/4분기에는 16.1%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IT 산업은 2000년도 수출의 29%를 차지하고 있고, 성장 기여도는 50.5%에 달하는 등 지식기반경제<sup>1)</sup>에 우리 나라도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일보, 2001년 3월 1일자).

이처럼 우리 나라는 급격히 정보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성이 적고 정보접근권이 취약



卞 倬 燦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지식기반경제란 컴퓨터와 통신망이 결합되어 정보와 지식을 새롭게 생산하고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빠르게 유통하는 것에 기반한 경제를 의미한다.

한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계층간 정보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그 결과 정보이용에 소외된 취약계층은 생활무능력자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정보화과정은 공동체가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분리되는 과정<sup>2)</sup>으로 규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보격차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이 사회근간산업으로 등장하면서 대두된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를 분석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화교육, 정보접근성 제고 등 정보화격차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정보통신의 발달과 정보격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첫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게 되고, 둘째, 육체적이고 힘든 일 보다는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정보화 사회가 오히려 기회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남으로써 장애인은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보다 빨리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사회적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의 발달은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뿐만 아니라 적극적 의미의 복지인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화는 육체적 근력이 요구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하며,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고 역할 축소에서 오는 소외감이나 무기력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생활화는 사회적 접촉 약화나 결여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이나 소외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공간 제한의 탈피는 이동기능이 약한 장애인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이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가상공간은 물리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새로운 삶의 장으로 활용되며,

2) 이영환, 「정보복지기본선 설정을 위한 서설적 연구」, 『상황과 복지』, 제7호, 2000.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비장애인과 장애인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정보화사회는 정보격차 또는 정보불평등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약자들로 하여금 더욱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체·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기에는 특수장비가 없을 경우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어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우며, 그 결과 의도하지 않은 배제(unintentional exclusion)를 당하기 쉽다.

장애인에게 있어 정보불평등은 다음의 몇 가지 요인<sup>3)</sup>으로 발생하고 있다. 먼저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이용능력 또는 그 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편적 설계 및 보조기기의 개발이 필요함에도 이의 개발이 미흡한 점, 둘째 장애인의 경제·사회적 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은 관계로 정보통신기기 구입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료 지불에 제한이 있으며, 셋째, 이동능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정보이용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이 미흡한 것도 정보불평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장애인은 정보불평등이 중첩된, 가장 소외된 정보빈곤자일 수 있다.

### 3. 정보격차 현황

#### 1) 성별 인터넷 이용자수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인터넷 이용률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부에 의하면, 1999년 10월 현재 인터넷 이용률은 22.4%이고, 이용자수는 943만 명이던 것이 2000년 12월에는 인터넷

3) 조주은, 「장애인의 정보화 현황과 문제점」, 『1998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회 발표문 요약집』, 한국사회학회, 1998.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게 되고,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장애인은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보다 빨리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사회적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률이 44.7%, 이용자수는 1904만 명으로 일년 사이에 거의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간 정보화 격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남성인터넷 이용률은 50.9%이며, 이용자수는 1083만 명인 반면, 여성 인터넷 이용률은 38.6%로서 남성에 비해 12.3% 포인트 낮으며, 이용자수는 821만 명으로 추정되어 남성에 비해 262만 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8월 조사 대비 남성 인터넷 이용률이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으나, 증가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고, 여성의 인터넷 이용자 구성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성별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수

(단위: %, 만 명)

구 분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이용자수				
	1999년 10월	2000년			8월대비 증가율	1999년 10월	2000년			8월대비 증가수
		3월	8월	12월			3월	8월	12월	
남성	30.0	41.5	44.4	50.9	114.6	631	873	946	1,083	137
여성	14.8	24.6	32.6	38.6	118.4	312	521	694	821	127

자료: 정보통신부, 내부자료, 2001.

## 2) 연령별 인터넷 이용자수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0년 12월 현재 7~19세가 679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20대로서 631만 명이었다. 인터넷 이용률은 20대가 7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10대로서 74.1%의 순이었다. 그러나 10대의 연령구분을 11세부터 19세까지로 조정하면 20대

표 2.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수

(단위: %, 만 명)

구 분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이용자수				
	1999년 10월	2000년			8월대비 증가율	1999년 10월	2000년			8월대비 증가수
		3월	8월	12월			3월	8월	12월	
7~19세	33.6	51.5	65.9	74.1	12.4	312	478	604	679	75
20대	41.9	59.1	65.9	74.6	13.2	360	507	557	631	74
30대	18.5	29.2	35.4	43.6	23.1	164	259	315	388	73
40대	12.8	18.6	18.5	22.7	22.7	81	119	124	153	29
50대 이상	2.9	3.3	4.3	5.7	32.5	26	30	40	53	13

자료: 정보통신부, 내부자료, 2001.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43.6%, 4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22.7%, 그리고 5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의 정보화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증가율은 8월 대비 50대 이상 32.5%, 30대 23.1%, 40대 22.7%, 20대 13.2%, 7~19세는 12.4%로서 고연령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3) 재가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현황

2000년 6월 현재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은 6.9%로서 남자는 9.0%, 여자는 3.6%인 반면, 2000년 8월 현재 비장애인 남성의 인터넷 이용률은 44.4%, 여성의 경우 32.6%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정보화 수준에 매우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재가장애인의 성별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수(2000년 6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남 자	여 자	전 체
인터넷 이 용 률	9.0	3.6	6.9
인터넷 이용자수	77,594	18,989	96,583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2001.

재가장애인의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을 보면, 10대가 29.9%로서 가장 높고, 다음이 20대, 30대의 순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인 장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는 60대가 0.7%, 70세 이상이 0.2%로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별 인터넷 이용률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대학 이상은 인터넷 이용률이 30%가 넘는 반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은 그 비율이 4%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인이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2000년 6월 현재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은  
6.9%인 반면,  
2000년 8월 현재  
비장애인 남성의  
인터넷 이용률은 44.4%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정보화 수준에 매우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지체장애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이 9.1%로 높은 반면, 정신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1.4%로 낮았다.

표 4. 재가장애인의 연령별·교육정도별·장애유형별 인터넷 이용률

(단위: %)

구 분	인터넷 이용률	
연령별	10세 미만	1.1
	10 ~ 19세	29.9
	20 ~ 29세	22.5
	30 ~ 39세	15.1
	40 ~ 49세	9.5
	50 ~ 59세	3.0
	60 ~ 69세	0.7
	70세 이상	0.2
	전체	6.9
교육정도별	무학	0.2
	초등학교	1.3
	중학교	4.0
	고등학교	12.6
	전문대학교	34.6
	대학교	32.0
	대학원	45.0
장애유형별	지체장애	9.4
	뇌병변장애	3.9
	시각장애	9.1
	청각장애	4.3
	언어장애	3.3
	정신지체	2.7
	자폐증	3.2
	정신장애	1.4
	신장장애	10.8
	심장장애	4.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2001.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이 없어서가 58.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입·설치비나 사용비 등 비용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13.6%(176,052명)로 나타나 장애인의 인터넷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비용부담을 완



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8.0%, 또는 '어디에 쓰는지 몰라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가 17.7%로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표 5. 재가장애인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구성비	인원
구입·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7.1	92,001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6.5	84,051
복잡하고 어려워서	8.0	104,269
필요성이 없어서	58.1	753,925
배우기 싫어서	2.2	28,588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몰라서	17.7	229,386
기타	0.5	6,444
계	100.0	1,298,66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2001.

앞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가 23.0%, 299,075명이나 되고 있다. 여건만 되면 인터넷을 활용하려는 등 정보화에 대한 욕구 규모를 알 수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정보화 수준이 매우 낮으나, 여건만 되면 정보화사회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강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들 장애인을 특별히 배려한 정보격차 해소정책이 조속히 수립·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표 6. 재가장애인의 향후 인터넷 사용계획

(단위: %, 명)

향후 계획	구성비	인원
꼭 구입·사용하겠다	4.9	63,505
여건이 되면 구입·사용하겠다	18.1	235,570
구입·사용할 계획이 없다	76.8	997,696
무응답	0.1	1,893
계	100.0	1,298,66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2001.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정보화 수준이 매우 낮으나, 여건만 되면 정보화사회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강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을 특별히 배려한 정보격차 해소정책이 조속히 수립·추진될 필요가 있다.

## 4. 정책대안

### 1) 기본 방향

정보사회의 근본이념은 '보편성(universalism)'에 있다. 즉, 정보사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통신을 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정보화과정은 오히려 정보화로 인한 장벽이 존재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정보화는 그 혜택이 사회계층사이에 불균등하게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계층간 불평등을 확대하고 새로운 정보격차를 만들어낼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회통합과 복지를 고려하여 정보취약계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편적인 서비스가 주어진다면 육체적인 근로능력보다는 일정 수준의 합리적인 판단력이 요구되는 정보화사회의 특성상 장애인들도 이러한 정보화사회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고,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정보화란 장애인에게는 장벽임과 동시에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벽은 제거하고 기회를 확대하여 정보취약계층도 정보화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정보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보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PC 보급 및 교육·훈련 등 범 국민적으로 장애인 정보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유형 및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컴퓨터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둘째,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공간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 및 업무(정보·통신업무, 번역 등)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셋째, 복지정보화는 정부와 민간의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각종 장애인 정보화 관련 단체의 현황 파악과 함께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큰 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정보화 사회의 결실을 장애인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장애인의 정보화는 단기간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접근하여야 한다. 보다 체계적으로 장애인 정보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장애인 정보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러한 계획하에 각종 정책을 하나 하나 단



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정책제언

### (1)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sup>4)</sup>와 함께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언제든지 부가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선택사양을 구비하는 정보통신수단의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하여 다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비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양식과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화를 포함한 기본 통신기기와 서비스를 포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 등 고도화된 정보통신기기·서비스에도 비장애인과 기능적으로 동등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정보통신환경의 접근장벽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사회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욕구가 매우 다양하다는 개인적 특성이 고려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예로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도서관시스템, 손이 불편하여 키보드입력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해서는 적외선 시선 추적시스템 등이 이용될 수 있으며, 음성전화를 이용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문자전화기와 통신중계서비스

정보화의 혜택이  
사회계층 사이에 불균등하게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계층간  
불평등이 확대되고  
새로운 정보격차를 만들어낼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보화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회통합과 복지를 고려하여  
정보취약계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4) 보편적 설계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이나 특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 서비스,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필수조건이다. 멀티미디어의 발달은 다양한 양식으로 정보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편적 설계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궁극적으로 보편적 설계는 모든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은 비용, 사회적 인식,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조주은, 「장애인의 정보화 현황과 문제점」, 『1998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한국사회학회, 1998).

가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윈도우 환경에서 음성합성이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기의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저가의 기기를 개발하여 보급하되,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 (2) 정보화 교육 확대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기기의 활용기술을 교육하는 정보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교육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지원기술을 상담해 주는 비영리 교육장의 설치가 중요하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 활용능력 교육사업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화 교육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기 쉽도록 지원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점과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이 필수적이다.

## (3) 장애인의 참여 확대

장애인들은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집에서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고 상담신청 및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으며, 장애를 배려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현실적인 요금 감면정책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욕구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및 사업추진의 각 단계에서 수요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전화, PC 통신 등 정보통신 이용요금 감면·할인 혜택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장애인들에게 유용한 내용물(contents)의 제공은 정보생활 촉진과 장애인의 동참을 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에 대한 수요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기초한 특화된 전문 사이트 개발·지원

5) 유명화, 「장애인복지 주요전달체계 정보화 실태조사」, 『재활복지』 제3권 제2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1999.

이 필요하다.

#### (4) 공공·민간 협력 확대

가상공간에서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계층은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지역주민과의 관계에서도 상호지원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기기의 접근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협력자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접근하기 편리한 정보화 교육장이 지역사회마다 확보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든 장애인복지관에 정보화 교육장이 설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추진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 (5) 정보격차해소 중장기계획 수립·추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보건복지정보화추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공급자의 측면에서 복지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루어져 왔다. 즉, 보건복지정보화는 사회복지분야, 보건산업분야, 보건의료분야, 사회보험분야 및 기반구축분야 등 5개 중점추진분야로 세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정보화를 위하여 사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자원 등 사회복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유용한 사회복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장애인 재활, 자원봉사, 아동보육 및 노인취업 등의 정보서비스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그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복지자원 관리 및 사회취약계층 관리 등의 분야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은 공급자 중심의 계획으로서 노인·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혜적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행정업무의 전산화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전화, PC 통신 등 정보통신 이용요금 감면·할인 혜택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한정되어 왔기 때문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 정보취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정보약자를 위한 별도의 정보격차해소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수요자의 참여를 통해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 5. 결 론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의 점유물이 아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수단,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 그리고 직접적 행위의 수단으로 되어 가면서 일상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핵심도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가정보화수준이 1위인 미국에서는 장애와 노령,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정보화사회에 접근이 어려운 자들에게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규정하여 모든 국민들이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으며,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은 인권의 보장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정보분야에 있어서 소외계층이 생겨나지 않도록 정보기기의 개발 및 보급, 정보화 교육 등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격차의 해소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정보화사회에 동참할 때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기술적인 장벽해소 외에도 사람에 의한 장벽제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적인 장벽보다 더 큰 장벽은 바로 사람에 의한 장벽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한다. 이는 장애는 없어지지 않지만 핸디캡(사회적 불리)은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